

정보화의 그늘, 정보격차

차성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csm@kado.or.kr

Digital Divide as Legal Issue

Cha Seong Min

KADO.

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 이용은 인간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 전망이 강조됐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경제성장이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보 접근이 점점 쉬워져서 사회적 평등이 확산되고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에도 더 가깝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현실에서는 정보에 대한 격차 및 정보로 인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용 확산에 따른 역기능으로서, 정보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정보격차의 개념과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2001년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법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I. 정보격차의 의미와 문제점

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정보격차의 의미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정도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 정보격리(information apartheid), 정보부자와 가난한 자(information haves and have-not) 및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등의 용어들이 비슷한 의미로 여러 문헌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보격차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격차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대통령 정책 보좌기구인 NTLA(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1995년 7월에 발표한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라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단절로 정의하고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정보격차란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정보격차를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사람 또는 집단)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갭(gap)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

결국 정보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 있어서 개인간 또는 집단간에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보격차라는 용어보다는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또는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각 국가들에서는 자

2. 정보격차의 원인과 문제점

정보격차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개인·사회·국가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정보로부터 소외된 개인은 직업선택과 소득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보의 접근 및 활용 능력 차이에 따라 교육 기회 및 취업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2] 둘째, 사회적으로는 소득격차와 문화적 단절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방해한다.[3]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자들은 정치·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게 되어 점차 사회참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사이버 시위 등의 정치 활동을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국민 여론 수렴 및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정보격차가 겹치는 경우에 이들 불평등 구조는 각각 더욱 심화되고 이 속에 빠진 개인이나 집단을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더 많은 디지털 미디어 접근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4]

이와 같은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van Dijk는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첫째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인 차별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 둘째로 소득, 고용 및 자산의 축